

‘징계 중심 학교규정’ 전남교육청 개정 추진

TF구성...학생·교사·학부모 역할 강조



선도·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개정되는 생활규정은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생을 인권보장, 교육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현정의 갈등이 첨예하고 악용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생활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지도’ ‘처벌’ 등 강요나 교사 중심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 지향 용어로 변경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도 교체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생활규정은 ‘자발적 참여’, 공부하는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구성원 모두의 책무성 강화’,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 지원을 위해 ‘학교별 자율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이 학생·선도·징계 중심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생·교사·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학교생활규정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TF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의 생활규정은 학생에 대한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439곳 안전감찰

안전시설 설치·관리실태 점검 2개월 앞두고 6월 시행

광주시는 최근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족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감찰을 7월말까지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자치구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해 관리 중이지만 여전히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관리실태 확인과 철저한 시설관리 유도를 위해 8월로 예정된 안전감찰 일정을 6월로 앞당기게 됐다.

이번 안전감찰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439곳의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다.

보호구역 안전속도 정보관리시스템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보호구역 지정·관리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안전표시 설치·관리 ▲도로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도로 유지·관리 등은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

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큰 호응

18개 동 우수사례 공유 및 인센티브 지원

서구의 맞춤형 복지가 일선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지난 7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공유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8개 동 맞춤형복지팀 직원들이 참석해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 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우수사례들을 공유했다.

특히 서구는 올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사업과 ‘저장장바구니가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복지사업의 질을 높이고 있다.

농성1동에서는 대만 국적의 외국인 근로활동이 어렵고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국적 문제로 지원사업 신청이

어려워 등에서 긴급복지생계비 지원, 이웃돌봄단 연계 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치평동에서는 침수 우려가 큰 주택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누수 및 역류 방지 등 집수리 공사를 진행했으며, 상무2동에서는 계일중독에 빠져 있는 지적장애인을 중독관리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서구는 이날 6개 동(농성1, 치평, 상무2, 화정2, 화정3, 금호2)을 최우수사례로 선정해 광주상생카드 30만원씩 인센티브로 지급했으며 나머지 동은 우수사례로 20만원씩을 지급했다.

/조선주 기자

순천만잡월드 노조 ‘순천시에 공개 사과’ 촉구

순천시가 순천만잡월드를 민간 위탁하면서 시민 헬세를 1억이 넘게 과다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맹민을 하지 않아 위탁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등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는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시는 (민간위탁사에) 부당 지급된 수억원의 헬세를 당장 환수하고 민간위탁사 계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를 보면 민간위탁사인 광주에 분사를 둔 D사는 ▲매출은 줄이고 경비를 높이는 식으로 2021년도 위탁사업비 1억2000여만원 과다 청구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개선 불충분 ▲시설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부적정 운영 등 4건의 위반·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순천시에 처분 요구 통보했다.

순천만잡월드지회는 지난 5일 순천 시청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관규 시장은 노동자들이 마치 공무원 시켜달라고 배나 쓰는 사람처럼 매도하고 페이스북과 방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끝으로 순천시에 ▲(민간위탁사에) 부당 지급된 시민 헬세 환수 ▲노동자들과 순천시민들에게 공개 사과 등을 요구했다.

/순천=조준의 기자

“학동 참사, 안전 사회 초석으로 되새겨야”

2주기 앞두고 광주 시민단체 성명

“안전 광주 위해 공동체 연대해야”

광주 시민 단체가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붕괴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지역 사회를 향해 참사 아픔을 되새기고 안전한 공동체 완성을 위해 연대할 것을 당부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 공동체는 (학동 참사에서 비롯한) 슬픔을 잊지 않고 안전한 광주공동체 건설을 위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참사의 아픔을 안전 사회를 위한 초석으로 만들고자 했던 바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시행자와 시공사, 중간 하도급 업체의 책임자들은 과실치사상 혐의와 불법하도급 책임자 처벌 관련 재판에서 검사의 기소 내용보다 줄어든 벌금형 처분 등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한 행

정 처분도 미뤄지고 있다. 기업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안전 조치 미흡에 따른 시행자와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 법 제·개정 논의는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불행 중 다행으로 사고 버스 정류장에 아픈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인근에 추모공간을 마련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광주시 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도 조급씩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아울러 “광주시 등은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 기구 발족을 논의하고 있다”며 “대책 기구를 통해 사회적 재난에 따른 시민 안전과 건설·제조업 현장 노동자들의 일터 위험 요인을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논의가 열매를 맺어 광주공동체가 시민 안전과 일터 안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단체 또한 학동 참사 희생자들과 연대하며 안전한 광주 건설을 위해 끝까지 손뼉 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노사민정, 물류센터 산업재해 예방 합동 캠페인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7일 산업안전공단 광주본부, 광주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과 합동으로 평동산단 내 쿠팡 물류센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서 광산구와 유관기관은 택배차량 안전운전을 적극 홍보하고 분류작업장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를 살피는 안전 점검을 벌였다. 또 산업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홍보하고, 노동자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용품을 전달했다.

/광산구 제공

광주시교육청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실시...11.42대 1

10일 전남공고·광주공고...5개 직렬 122명 선발

광주시교육청 202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경쟁률이 11.42대 1을 기록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 전남공고·광주공고에서 펼쳐지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 필기시험’에 1393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필기시험에서는 교육행정 9급 등 5개 직렬에서 122명을 선발한다. 경쟁률은 11.42대 1이다.

시험은 오전 10시~11시 40분, 총 100분 동안 진행된다. 장애인 등 편의 지원은 신청자에게 제공되며, 시험 시간 연장 편의 지원 대상자는 12시 30분(150분) 또는 12시 50분(170분)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응시자에게 개인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응시자는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및 손소독

제 사용 후 입실이 가능하다.

응시자는 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된 필기시험 시간 및 시험 장소를 확인하며,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유호한 여권·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반드시 소지하고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다음달 10일 발표되며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7일 최종 합격자가 가려진다.

/조선주 기자

전남, 여름철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 종합대책’ 시행

민·관 모니터링 86명 주2회 이상 예찰활동 등

전남도는 올 여름 수온이 예년보다 0.5~1℃정도 높아 해파리 성장이 빠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파리 어업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관내 해역에 해파리 특보 발령 시 어업인, 도, 해양수산과학원, 시군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모니터링 요원 86명이

주 2회 이상 해파리 예찰활동을 한다. 해파리가 대량 발생하면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파리 제거와 수매사업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 기준은 100m당 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또는 노무라입깃해파리 1마리 이상 나타나는 경우다.

이는 축구장 면적(7140㎡)으로 환

산할 경우 경기장 한 개 안에 보름달물해파리 355마리, 노무라입깃해파리 71마리가 출현하는 정도다.

지난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해파리 출현 현황을 분석, 어선어업에 피해를 주는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 초·중순부터 해파리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인 독성 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는 동중국해에서 1ha당 평균 10마리로 지난해보다 80% 줄었으나 성장은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운암도서관 인문학 특강

오는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북구는 운암도서관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2023년 독서아카데미 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인문학 특강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독서아카데미는 주민들의 인문소양 증진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문화재단, 도서관 등 지역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운암도서관은 ‘사기, 다시 읽는 불멸의 역사서’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오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5회에 걸쳐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tvN 별거뻐는 세계사 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통해 잘 알려진 전남대학교 이성원 교수가 진행하며 인문학의 보고이자 동양역사서의 근간인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 중국사를 알기 쉽게 풀어간다. 수강생 30명을 오는 12일까지 선착순 모집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북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북구 구립도서관은 올해 독서아카데미를 비롯해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등 인문학 관련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주민의 인문소양 증진과 독서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유해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검사는 수산물 위생관리 및 비브리오팀 오염방지를 위한 수족관 온도 등에 의한 위해요소 및 동물용 의약품·중금속 등 유해물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검사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장어, 오징어 등 다소비 수산물이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럴티스균, 장염비브리오균) ▲잔류동물용의약품(아목시실린 등 92종)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방사능(세슘, 요오드)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긴급 통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관할 시·도에서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백식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여름철 수산물에 대한 비브리오팀 등 위생검사와 유해물질 잔류량 및 방사능 검사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생 합시다”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맞손

동반성장 MOU...지역 중기 참여 상생박람회 개최도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8일 광주도시공사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동반성장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특화단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 공동사업 발굴·실행 ▲업무 관련 전문가 기술 공유와 인적

교류 활성화 ▲ESG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공공구매 활성화 공동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주·전남 미래발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전문인력과 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또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홀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2023 광주·전남 상생 공공구매박람회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 기관을 비롯해 지역 공공기관, 지역 중소기업 30개 사(광주 15, 전남 15)가 참여했다.

/권형안 기자